



출근하는
엄마를 따라
직장탁아소를
찾은 어린이
들. 그러나
취업모의 대
부분은 직장
탁아보다 집
근처의 지역
탁아를 희망
하고 있는 것
으로 조사됐
다.

就業母들 子女교육으로 갈등

한국여성단체협의회 450명 조사

대부분의 취업기혼여성근로자는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에 갈등을 겪고 있으며 자녀의 정서와 교육문제를 가장 심각히 여기고 있는

(31.8%). 다음이 휴식시간 부족(20.7%)가사부담(17.8%) 승진문제(11.1%)의 순이다.

특히 응답자의 80.6%

를 친정부모(63%)나 시집부모(27%)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▲자녀의 성격형성(37.1%) ▲자녀를 마음대로 볼수 없음(25.7%) 등의 심리적 불안을 상당히 겪고있는 것으

응답자 80%가 "직장 그만둘 생각" 경험
19%는 시집부모나 친정부모가 양육해

것으로 밝혀졌다.

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전문직·사무직에 종사하는 취업모 4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탁아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나타났

다. 응답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고 있는 것은 자녀위탁 문제

자녀양육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, 그 이유로는 남편이나 시부모의 반대(각각3.2, 1.7%)보다는 대부분 자녀의 정서·교육문제가 걱정돼서(92.8%)로 대답했다.

응답자중 19%는 어린자녀와 떨어져 살면서 이들

로 드러났다.

이에따라 취업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당연히 양가부모가 대부분이며(66%) 파출부등 가사서비스 인력에 의존하는 사람도 13.8%나 됐다. 반면 탁아기관의 이용은 4%에 불과했다.

이들은 대리 양육비로 월 10만~30만원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(62.5%) 30만원이상을 쓴다는 이도 적지 않았다(12.6%).

그러나 대리양육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취업모들도 많았는데(34.1%) ▲자녀버릇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(29.4%) ▲나이맞음(18.1%) ▲낮은 교육수준(11.9%) 등이 주된 이유.

응답자의 절반이상(58%)이 종일제 비영리 탁아시설 이용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. 탁아시설은 ▲집근처(55%) ▲시간제 이용(41%) ▲탁아비용은 10만원 이내(73%)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洪垠姬기자>